



범어사 앞주문은 독특하게 돌기둥으로 되어 있다.

팔송거리의 운명처럼 요즘 범어사는 고 속철도의 금정산 통과 문제로 발집을 추켜 놓은 듯하다. 천성산을 관통하는 고속철도가 금정산의 밀림을 통과하고 지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보다 턱없이 평가 절하된 허구의 환경영향평가를 등에 업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다 보면 수백변화와 지반침하로 자연생태계가 연쇄적으로 파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범어사 들머리는 등운곡이다. 등운곡이라는 이름은 수백 그루의 등나무들이 계류에 군락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붙은 지명이다. 군락지 전체가 천연기념물(제176호)로 지정되어 있다. 5월이면 꽃망이 피어 구름처럼 계곡을 뒤덮는 장관을 이룬다.

숲속에는 높이 15미터를 웃도는 노동(老童)도 간간히 눈이 띈다. 그러나 등나무는 아무리 밑둥이 굵어도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옆에 버팀나무가 있어야 한다. 현재 노송을 비롯하여 팽나무, 왕버들, 서어나무 등의 노거수들이 혼생하며 버팀목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러나 등나무는 결국 생존의 의지처럼 나무를 죽이고 자신도 생을 마감하고 가는 숙명을 지니고 있다. 이렇듯 등나무가 나무 선장하면 숲의 식생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갈등(葛藤)'이라는 말이 더욱 실감나게 느껴진다.

한 가지 신기한 것은 등운곡의 갈둥이 속

계와 불계를 나누는 어산고 위쪽으로는 편어나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어산고 위쪽이 갈둥과 번뇌를 씻은 불보살의 경계이기 때문일까. 갈둥의 상징인 등나무는 천상 속계(俗界)의 나무일 수밖에 없다.

범어사의 일주문은 원래 나무기둥이었던 것을 속중 때 명휴대사가 돌기둥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아마도 한계미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범어사가 습한 지역이라 한계미의 피해가 적지 않다. 대웅전까지 건드리는 실정이라 한다.

천왕문과 불어문 사이의 공간에는 천나무,

신라의 상상님이 창건했다는 금정산 범어사. 금정(金井)이라는 이름은 정상인 고당봉에 있는 전설의 금샘에서 유래한다. 옛사람들은 이 암상금정(巖上金井)을 두고 '금정산'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금빛샘에 범천으로부터 내려온 금어(金魚)들이 헤엄치며 놀고 있다고 해서 '범어사(梵魚寺)'라는 이름을 지었다 한다.

화엄사찰답게 범어사는 일주문-천왕문-불어문-보제루-대웅전 등이 만드는 일직선이 가람들의 축을 이루고 있다. 산의 경사를 이용한 나지막한 계단과 절묘하게 배치된 산문들은 직선의 경직성을 부드럽게 누그러뜨려 준다.

원래 범어사의 들머리는 동래 팔송거리였다. 개발사대에 들어와 팔송은 흔적도 없고 그 자리에 지하철역이며 버스주차장이며 유흥가가 들어섰다. 그 바람에 숲 그늘에서 운수승들을 반겨주던 새들만 실터를 잃었다. 직박구리 몇 마리가 유흥가의 간판에 올라앉아 사람들이 버린 음식 찌꺼기를 앓고 있다.



◇금정산범어사, 이호신 작(57×93cm), 2000년.

### 등나무 군락 등운곡...전체가 천연기념물

사찰생태연구소 · 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 108사찰 생래기행

(3) 금정산 범어사

글 · 사진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장)

나온 노람함미새는 용마루에 앉아 매무새를 고치고 있다. 머리에 아름다운 장식물을 후투티는 먹이를 들고 북문 아래쪽으로 포르푹 사라진다. 딱새는 인기척에도 아랑곳없이 육화행로 안팎을 제집처럼 드나들고 수다쟁이 직박구리는 불어문 영역에서 논다.

대성암 옆으로 금정산의 정산인 고당봉으로 오르는 등산로가 나왔다. 대성암 주변은



◇금정산의 유래가 된 '암상금정'.

로 손꼽히는 '금강만풍(金剛晚風)'도 이를 활엽수들이 연출해낸 것이다.

범어사 계곡은 온통 바위투성이이다. 그것도 지름이 2-5미터에 이르는 큰 바위(巖)들이 골짜기를 그득 메우고 있다. 특히 대성암-금강암-고당봉 8부능선 구간의 암괴류는 금정산 지질과 지형의 특징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암과 사이사이를 맑은 물이 거미줄처럼 흐른다. 금정팔경 중 하나인 대성수(大聖湧水)는 바로 이 암괴류 밑을 돌아돌아 흐르는 그윽한 물소리를 이르는 말이다. 이 대성수는 금정산의 생명수이다. 특징이



◇등운곡 등꽃과 갈색어지는 금정산을 상징하는 동식물이다.

생동물로 지정된 도롱뇽, 산개구리, 두꺼비, 아무르산개구리 등등 금정산의 양서류들은 모두가 생명수로 해서 태어나는 것들이다.

범어사 골짜기는 수명만으로 들어가는 운천천의 상류이다. 하지만 불과 1킬로미터 아래쪽 상가지구에 이르면 벌써 냇새는 4급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곳의 버들개개 다른 지천의 버들개개 생태적으로 교류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생태적으로 강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범어사 버

### 5월엔 연보라·흰 등꽃 구름처럼 계곡덮어 어산고~금강암 아교목 절경 '금강만풍' 연출

삼나무, 편백나무가 견장하게 열병하고 있다. 좌우의 담장들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더욱 높아보이는, 선방의 입문같은 나무들이다. 한울의 흐트러짐도 허송하지 않는 깨끗한 자세의 나무들이 경건하고도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 공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웃김을 여미게 되는 것도 그때문일 것이다.

범어사 큰 법당 주변은 온통 새들의 세상이다. 지장전 맞배지붕의 합각종편 틈새는 박새 한쌍이 보금자리를 틀어놓고 연신 먹이를 물어다 나른다. 어디선가 알을 품다

군락지라고 볼러도 좋을 만큼 서어나무가 많다. 이 서어나무는 범어사 들머리인 어산고 주변에서 시작하여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금강암 주변에까지 군락을 이루고 있어서 범어사의 대표적인 수종이라 할만하다.

서어나무와 어깨를 나란히 한 팽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단풍나무, 왕버들 등의 덩치들도 다들 좋다. 숲속에는 물푸레, 생강나무, 때죽나무, 쪽동백, 노린재나무, 노각나무 등등의 아교목들이 층위구조에서 하층을 우점하고 있다. 금정8경 가운데 하나

# 영상법당! 불교텔레비전



- 동국대 7' 불교어카데미
- 한국 종교문화의 이해(철)
- 인도불교의 사상과 역사(화)
- 정토사상(수)
- 여래장사상(목)
- 한국 선사상 연구(금)
- 한국 불교사상사 연구(토)

- 혜거스님의 유식 삼십삼강의 해주금, 토요일 08:50 / 19:55
- 성운스님 불경강좌 해주토요일 10:15 / 20:35
- 홍승스님의 사찰음식 해주수요일 09:20 / 19:15
- 구본일의 태고와 명상 해주화요일 09:20 / 19:55
- 간디라 불교와 한국의 미래 해주목요일 09:20 / 19:15



불교텔레비전에서는 불교인터넷방송 불교위성방송을 하기 위하여 법당을 건립합니다. 큰 행복 큰 자유 누리고져 지혜의 복덕 구축하도록 큰 공덕 지으소서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회장 석성우 대표이사 이수덕

- 삼천불은 청동불로 조성됩니다.
- 가족단위 원불조성도 가능합니다.
- 삼천불조성금은 분할하여 입금하셔도 됩니다.
- 법당위치: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945-2번지 (지하철2호선 봉천역 3번출구)
- 입금계좌번호 : 827-25-0015-134(국민은행) 예금주 : 불교텔레비전(주)
- 문의전화 : (02)3270-3366~7 불교TV사업부 (02)2648-0108, 1211 사찰순례팀

최고의 진리 바로 당신의 소중한입니다.

불교TV후원 전화 060-700-1032(ARS) 한통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www.btn.co.kr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418(금호천기빌딩)